

번역투 다시 보기: 코퍼스 분석 사례를 토대로

최 희 경
(고려대)

1. 서론

‘번역투’(translationese)라는 말에 어느 정도 경멸조의 어감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번역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번역이 번역투를 띠는 평을 받을 때 이를 받기 쉽지 않다. 전문번역사로 일하기도 하는 본 연구자 또한 누군가 번역투 운운하면 괜히 번역사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다. 번역을 읽는 독자도 어떤 번역이 번역투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번역의 전반적인 품질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것이다. 물론 번역투를 보는 시각에 따라 번역사가 번역투를 번역 전략의 일환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독자 또한 번역투에서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며 만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경우라도 번역투는 그 술어의 조어 형태(번역+투) 때문에 ‘번역에 나타나는 어투’ 또는 ‘번역(또는 번역사) 때문에 생긴 어투’라는 어감을 주게 된다. 국내 번역 연구에서도 번역투는 목표언어에 부합되지 않아 순화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번역현상’(이근희 2005; 류현주 2009; 김정우 2011; 김순

영 2012)으로 기술되고 있다. 사실 번역투는 번역뿐만 아니라 원래 한국어로 쓰인 비번역문에서도 지적되는 문제지만(김정우 2003; 신유진 2011), 비번역문에 나타나는 번역투를 논의하는 맥락에서도 여전히 번역투는 번역이나 번역가의 능력과 관련한 논의로 귀결되곤 한다. 번역투는 언제나 그 표현대로 번역과 번역사의 원죄여야 하는가? 번역투는 진정 번역에서만 비롯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본고는 일견 견고해 보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번역투 다시 보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번역투는 번역뿐만 아니라 비번역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우선 왜 번역투가 ‘번역의 어투’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번역투로 지적되는 현상이 정말로 번역문에서 두드러지는 어투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번역투를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 시각은 없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번역투에 대한 이론가들과 일반 대중의 다양한 인식과 관점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여러 선행연구가 번역투로 규정했던 현상 중 일부를 기사문 번역코퍼스 및 비번역코퍼스에서 재고찰함으로써 번역투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번역투에 대한 제(諸) 관점

2.1 번역학에 나타난 관점

번역학 내에서 번역투는 꽤 비중 있는 연구 주제로 논의돼 왔다. 관련 연구의 대표적인 관점으로 번역투는 번역사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타난다는 시각이 있다. 번역투란 번역에 나타난 언어가 통상적이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초보 번역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덫으로서 경계할 대상이라는 견해다(Di & Nida 2006). 번역투를 품질 개선의 대상으로 본 연구는 국내 기존 연구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번역투를 어휘, 문법, 화용적 오류 또는 품질 저해 요소(이근희 2005, 2008)로 평가하거나 모국어에 맞게 순화해야 할 부정적 대상(신유진 2011: 16)으로 본다. 또한 번역투를 번역사의 번역 방법이나 숙련도와 연계해 설명하면서, 세련되지 못한 ‘직역’의 결과 원문의 구조나 형식이 도

착어 체계에 어색하게 전이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김순영 2012: 68-69). 이 관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고도로 숙련되고 유능한 번역사의 번역에서는 번역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는 본고 분석에서 염두에 둘 점이다.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아무리 뛰어난 번역사의 결과물이라도 번역에는 번역 고유의 언어 특질이 나타나며 이것이 바로 번역투라는 주장이 있다. 다시 말해 번역문에는 출발어나 도착어의 언어 특질과는 다른 번역만의 코드(code)가 나타나며(Flores 2012: 5) 비번역문과는 구별되는 번역문만의 특징이 나타난다(Teich 2003: 143)는 것이다. 번역투를 독립적이고 기술적(記述的)으로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번역 고유의 언어, 비번역과의 차이에 대한 관심은 번역의 보편적 특징(translation universals)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며(Puurtinen 2003: 391) 관련 연구의 중심은 여전히 번역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런가 하면 통상 번역투라고 번역되는 *translationese*라는 용어를 최초로 소개한 겔러스탐(Gellerstam 1986: 88)은 번역투를 “도착어에 대한 출발어의 체계적 영향”(Flores 2012: 10 재인용)이자, 번역에 남겨진 출발어의 ‘흔적’(fingerprints)(Gellerstam 2005: 202)이라고 정의한다. 이 관점은 번역 품질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한 가운데 출발어 특질의 영향과 전이를 논함으로써 비교적 포괄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앞선 관점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번역 텍스트를 대상으로 번역투를 논하고 있다.

2.2 대중 담론에 나타난 관점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번역투는 이론적으로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학계가 아닌 실제 언어사회 차원에서 번역투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 언어사회의 구성원들이 번역투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중이 생산하는 또는 대중을 위해 생산되는 담론을 관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지난 5년간 번역투가 언급된 국내의 각종 기사문과 기고문을 검색해 정리해보았다. 일반적인 언어화자의 관점을 추출하기 위해 번역과 관련된 맥락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된 번역투를 모두 검토해 보았다. 국내 기사의 통합검색을 지원하는 웹사이트인 미디어 가온

(<http://www.kinds.or.kr>)에서 2010년 8월 6일부터 2015년 8월 5일로 기간을 설정하고 번역투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총 462건¹⁾의 기사문 및 기고문이 출력되었다.

검색된 글을 모두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번역투가 언급된 맥락에서 번역투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한 글이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저자가 독자들이 번역투라는 어휘에 친숙해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여긴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거의 예외 없이 번역투에 대해 부정적인 수식어와 기술이 많았다. ‘번역투 문장을 지양해야’, ‘번역투의 문장이 거슬러’, ‘번역투 때문에 술술 읽히지 않아’, ‘번역투 문장을 고치려고 노력해’, ‘번역투를 줄이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투 많아 눈살’, ‘매끄럽지 않고 어색한 번역투’ 등의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즉 번역투가 자제하고 고쳐 나가야 할 개선 대상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는 번역투를 품질 문제로 여긴 이론적 관점이 실제 언어사회 구성원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대중 담론에서 번역투가 반드시 번역 텍스트 맥락 내에서만 거론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번역 텍스트 맥락에서 번역투를 언급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는 이미 번역투가 번역만의 문제가 아닌 언어사회 전체의 언어산물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비번역 텍스트 번역투에 대한 언급은 다양한 장르와 맥락에서 나타났는데, 그 중 자주 언급된 경우는 법조문, 문학서적, 학습자료, 글쓰기, 성경 등이었다. 번역투의 원인에 관한 논의도 마찬가지로 다양했다. 번역사의 번역 능력이 부족해서 번역투가 나타난다는 의견 외에 번역사나 번역이 아닌 다른 요인을 거론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번역투가 잘못된 외국어 학습에 기인한다거나, 세계화로 외국어 능력, 특히 영어 구사 능력이 강조되면서 영어 교육에 치중한 결과 영어 번역투가 한국어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거나, 문학에서는 이미 번역투가 일종의 문체로 발전해 일부 작가가 이를 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데 이르렀다거나, 기성세대의 영어, 일본어로 오염된 언어생활 습관이 침투한 결과라는 등의 견해가 있었다.

1) ‘번역’ 또는 ‘투’가 따로 검색돼 포함된 기사들은 제외하고 살펴보았다.

대중 담론에 나타난 번역투 논의는 기존의 번역투 연구와 대체로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번역이 아닌 비번역문에 뿌리내리게 된 외래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어떻게 보면 일반 언어화자들은 번역학계의 논의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번역투를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다.

2.3 접촉성 언어변화로서의 번역투

번역투에 대한 일반 언어사회의 관점은 번역투라는 술어에 대한 인식이 술어 자체가 연상시키는 ‘번역과 관련된 어투’라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번역을 출발어와 도착어라는 두 언어가 만나는 장(House 2006; Steiner 2008)으로 볼 때 번역투는 두 언어가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언어변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변화에는 접촉 매개가 되는 번역사의 접촉 행위와 의사결정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모종의 접촉성 언어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 접촉의 장을 전체 언어사회로 확대해보면 언어사회 구성원인 언어화자들 또한 언어접촉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온 지구촌이 각종 매체와 자유로운 여행으로 연결된 시대에는 한 사회의 언어화자들이 다양한 언어와 그 화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거에는 번역사가 외국어의 영향을 유입한 주요 경로였다면(Bandle et al. 2002: 514), 이제는 대부분의 언어화자가 번역사와 같은 언어접촉 매개체가 되어 비번역의 맥락에서 번역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번역투를 번역 품질 문제나 번역어의 특성 등 번역 자체에 국한하는 시각보다는 언어화자의 언어접촉에서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흔적을 남기는 현상, 다시 말해 접촉성 언어변화로 보는 시각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언어변화는 접촉언어학(contact linguistics)에서 논의하는 언어변화 중 차용(borrowing), 즉 한 언어사회의 모국어가 외래언어와 접촉해 어휘적, 구조적 영향을 받는 현상(Winford 2003: 12), 또는 코드모방(code-copying), 즉 기본코드(모국어)가 모델코드(외래언어)를 모방하는 언어현상(Johanson 2002: 287-89)과 여러모로 닮아 있다. 차용이나 코드모방은 언어사회 차원에서 나타나

며(Gómez-Rendón 2008: 29), 외래적인 언어 요소가 모국어로 깊숙이 침투해가는 과정(Backus 2010: 230)이라는 점에서 언어사회 차원에서 나타나는 번역투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하겠다. 접촉성 언어변화의 중요한 원인인 사회적 요인(Thomason 2001: 21-22), 지배적인 언어, 문화, 권위의 영향(Appel & Muysken 1987: 154-58) 등은 번역투의 원인에도 대입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 일본어 강제 사용 정책이나 현대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영어의 영향력 등은 한국어와 일본어, 한국어와 영어 간 접촉에서 번역투로 규정되는 다양한 언어변화를 야기해온 원인이 될 수 있다.

3. 코퍼스에 기반한 번역투 분석 사례

3.1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베이커(Baker 2004: 184)에 따르면 코퍼스 연구는 선행연구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기존 번역투 연구가 주로 용례를 추출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바, 이들 연구결과를 코퍼스 분석으로 검증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기존 번역투 연구는 어휘적, 통사적, 화용적 층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본고에서는 그중 한국어 품사에 존재하지 않는 영어 품사인 전치사가 한국어 번역과 비번역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번역투를 고찰해보도록 한다. 영어의 전치사는 한국어에 등치되는 품사가 없으므로 주로 조사나 동사 등의 품사로 치환된다. 영어에는 많은 전치사가 있지만 그 중 김정우(2003: 158-60)와 이근희(2005: 188-90)에서 *from* 및 *through*의 번역투로 제시한 사례가 한국어 번역코퍼스 및 비번역코퍼스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비교 분석해보도록 한다. 이들 전치사에 대한 번역투가 번역과정에서 다수 발생한다면 비번역코퍼스에 비해 번역코퍼스에 나타나는 번역투 표현의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이를 수 있다. 이들 전치사는 김혜영(2009)에서도 번역코퍼스 및 비번역코퍼스 비교 분석에서 다뤄진 바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출발어 텍스트(source text, ST)와 도착어 텍스트(target text, TT) 간 전환이 논의되지 않았으며 코퍼스의 성격도 다르므로 본고

의 분석으로 새로운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코퍼스는 크게 번역코퍼스, 비번역코퍼스, 참조코퍼스로 구성된다. 번역코퍼스 및 비번역코퍼스로는 대중적이고 언어적인 영향력이 있는 언론매체 자료(Millar 2009: 194)인 기사문을 수집해 본 연구자가 직접 구축했다.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 자료는 주제별 자료 구축이 가능하고 독자층이 비슷해 코퍼스 구축이 용이한(Laviosa 2002: 39-40) 장점이 있다. 또한 대중을 위해 생산되고 대중에게 소비되는 자료이므로 모국어와 외국어 간 접촉과 영향이 잘 반영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번역코퍼스는 국내 독자를 위한 전역(全譯) 한국판이 제공되는 해외 언론 자료인 뉴스위크(Newsweek), 포춘(Fortune), 워싱턴타임스(The Washington Times) 기사의 ST와 TT로 구성되었다. 비번역코퍼스는 국내 언론자료인 시사저널, 주간동아, 한겨레21로 구성되었다. 텍스트의 주제는 매체별로 달리 분류되어 있으나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의거, 국제, 경제, 기업,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의 범주가 고루 분포되도록 유의해 하위코퍼스들의 속성이 비슷하도록 구축했다. 번역코퍼스 및 비번역코퍼스에 포함된 기사는 2012-2015년의 기간에 걸쳐 추출했다. 한편 한국어 참조코퍼스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세종코퍼스의 하위코퍼스인 “현대문어³⁾” 코퍼스를 사용했다(국립국어원 2010). 이 코퍼스는 연구자가 구축한 기사문 장르의 코퍼스와 달리 다양한 장르와 유형의 자료를 균형 있게 구성해 만든 거대 규모의 일반코퍼스(general corpus)(McEnery et al. 2006: 59-60)이다. 연구자는 자체 구축한 번역코퍼스, 비번역코퍼스를 참조코퍼스와도 비교 분석한다. 아래는 이들 코퍼스의 개괄적인 구성과 통계량을 언어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워드스미스(WordSmith)(Scott 2008)로 산출해 정리한 표다(표 1 및 표 2).

2) 번역과 비번역 모두 각 매체의 국내 및 해외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했다.

3) 원래 세종코퍼스 현대문어 텍스트 목록에는 대담, TV프로 전사물, 강연자료 등 구어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텍스트를 제외한 문어 텍스트만으로 재구성했다. 세종코퍼스는 국내에서 유일한 공개 일반코퍼스지만 이쉽게도 사업 완료 후 자료가 추가되지 않아 본고의 코퍼스와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 대규모 일반코퍼스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세종코퍼스가 1998-2006년에 걸친 자료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개별 연구자의 자체 구축 코퍼스와 시점을 일치시키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표 1〉 코퍼스의 개요 및 구성

종류	언어	코퍼스명	시기	표본 및 주제
번역	영어	ST_Eng	2012 - 2015	뉴스위크/포춘/WT 기사 80개 텍스트파일 (국제, 경제, 기업, 사회, 문화, 과학/기술)
	한국어	TT_Kor	2012 - 2015	위 기사의 번역 텍스트
비번역	한국어	Org_Kor	2012 - 2015	시사저널/주간동아/한겨레21 기사 80개 텍스트 파일(국제, 경제, 기업, 사회, 문화, 과학/기술)
참조	한국어	Ref_Kor	1998 - 2006	세종코퍼스 현대문어 텍스트 1,127개 (각종 주제의 책, 보고서, 신문, 잡지, 연설문 등)

〈표 2〉 코퍼스 기초 통계량

통계량	ST_Eng	TT_Kor	Org_Kor	Ref_Kor
총 어절수 ⁴⁾	56,947	41,578	75,793	36,942,784
어절수/문장	17.80	11.75	12.80	12.08
STTR(% ⁵⁾	48.04	76.85	72.23	73.47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분석 코퍼스의 전체 크기는 총 240개 기사문, 174,318어절로, 자체 구축한 병렬코퍼스를 분석한 선행연구 중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코퍼스 연구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⁶⁾. 문장당 어절수는 한국어 번역코퍼스(11.75)가 비번역코퍼스(12.80) 및 참조코퍼스(12.08)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STTR은 번역(76.85)이 비번역(72.23) 및 참조코퍼스(73.47)보다 높게 나타났다.

- 4) 영어는 단어수, 한국어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한 어절수로 산정되었으나 편의상 어절수로 통칭하도록 한다.
- 5) 타입-토큰 비율(type-token ratio)은 어휘의 다양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나 텍스트 길이가 길어지면 값이 작아지는 왜곡이 발생한다(Oakes 2012: 133). 워드스미스에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N(기본값 1,000)개의 어절 묶음별로 TTR을 계산, 그 평균치를 구한 STTR(standardized TTR)을 산출한다(Scott 2008).
- 6) 코퍼스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도 중요한데(최희경 2015), 그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면 정성적 분석에는 현실적인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Malamatidou 2013: 418). 참고로 최희경(2015)에서 분석한 2005-2014년 코퍼스 관련 국내 논문 30편 중 6편, 해외 논문 58편 중 11편이 10만 어절 미만의 소량 코퍼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짧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한 번역 텍스트에서 오히려 더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최희경(2014)에서 유사한 기사문 코퍼스(464,008 어절)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며, 번역문이 비번역문에 비해 ‘문장이 짧고 어휘가 단조롭다’는 번역의 단순화(simplification)(Laviosa 2002: 51-64) 가설이 명확한 이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최희경 2014: 101-102). 이런 맥락에서 기존에 논의된 번역투 사례를 코퍼스 분석으로 재고찰하려는 본고의 시도는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다.

3.2 분석결과 및 함의

3.2.1 *from*의 번역투 분석

선행연구(김정우 2003: 158-59; 이근희 2005: 188)는 영어 전치사 *from*에 대해 ‘~로부터’라는 한국어 번역이 자주 쓰이는데, 이는 어색한 번역투이며 맥락에 맞는 적절한 한국어 조사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정우는 원래 한국어로 쓰인 문장에도 번역에서 영향을 받은 ‘~로부터’가 사용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를 직접 인용한 아래 <예문 1>과 <예문 2>에서 보듯이 ‘~로부터’를 ‘~에게(서)’ 또는 ‘~에서(부터)’ ‘~중의’ 등으로 대체할 때 훨씬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예문 1>

원글: 웃음의 유일한 기능은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대안: 웃음의 유일한 기능은 ‘긴장에서 벗어나는 해방’이다.

(김정우 2003: 158-59)

<예문 2>

ST: One scientist with NASA discovered that houseplants actually remove pollutants from the air.

TT: NASA와 더불어 한 명의 과학자는 실내 식물이 공기로부터 오염물질을 실제로 제거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안TT: NASA에서 근무하는 한 과학자는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이

실제로 공기 중의 오염을 없앤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근희 2005: 188)

이들 주장을 토대로 하면 본고의 코퍼스로 분석했을 때 TT_Kor에 나타나는 ‘~로부터’의 빈도가 Org_Kor에서보다 더 높으리라 가정해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워드스미스를 사용, TT_Kor, Org_Kor, Ref_Kor 각각에 대해 모든 단어의 빈도를 집계해 순위를 보여주는 어휘목록(WordList)을 생성한 다음 이를 엑셀파일로 변환해 ‘~로부터?’의 빈도를 조사했다.

〈표 3〉 ‘~로부터’의 빈도 및 비율

통계량	TT_Kor	Org_Kor	Ref_Kor
총 어절수	41,578	75,793	36,942,784
빈도	32	35	24,625
정규화 빈도 ⁸⁾	38.482	23.089	33.329
비율(%)	0.077	0.046	0.067

‘~로부터’의 정규화 빈도와 비율은 TT > Ref > Org 순으로 높았다. 번역에 나타나는 ‘~로부터’의 빈도가 비번역코퍼스보다 높을 뿐 아니라 참조코퍼스보다도 높았다. 번역과 비번역 간의 차이는 번역과 참조코퍼스 간의 차이보다 컸다. 이 분석에 한해서 번역이 비번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조코퍼스와 유사한 속성을 보인다는 의미다.

여기서 TT_Kor에 나타난 ‘~로부터’가 모두 *from*에서 번역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빈도에서도 새로운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워드스미스를 사용, TT_Kor에 대해 ‘~로부터’ 용례 32개의 사용 맥

7) ‘~로부터’ 검색 결과 중 ‘그로부터’, ‘이로부터’, ‘예로부터’, ‘지금으로부터’ 등 명사와 자연스럽게 또는 관용적으로 결합한 사례는 제외했다.

8) 코퍼스 크기가 서로 다르므로 같은 크기를 기준으로 환산한 빈도인 정규화 빈도(normalized frequency, NF)를 구해 비교한다(Biber et al. 1998: 263-64). 본 연구에서는 번역코퍼스와 비번역코퍼스의 크기가 각각 41,578어절 및 75,793어절을 고려, 5만 어절을 기준으로 정규화한다. 따라서 규모가 훨씬 큰 참조코퍼스의 경우 데이터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락을 보여주는 어휘맥락색인(concordance)을 생성하고 각 용례에 대응하는 ST를 추적해보았다. 아래 그림 1은 해당 어휘맥락색인 화면으로, 각 '~로부터' 용례가 나오는 출처 TT 파일은 오른쪽 마지막 열에서, 용례의 자세한 맥락은 각 행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TT에 대응하는 ST와 해당 문장을 찾아내는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 TT_Kor의 '~로부터' 어휘맥락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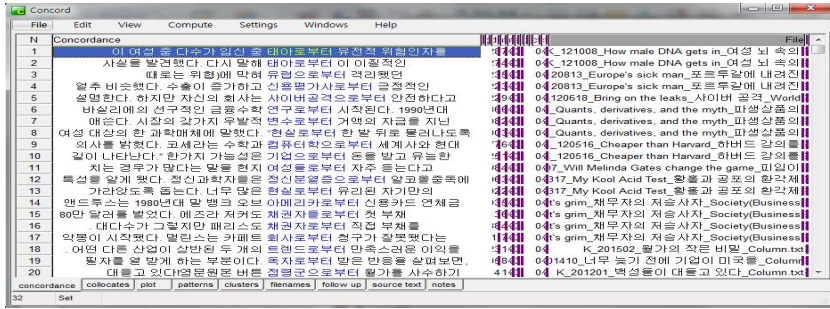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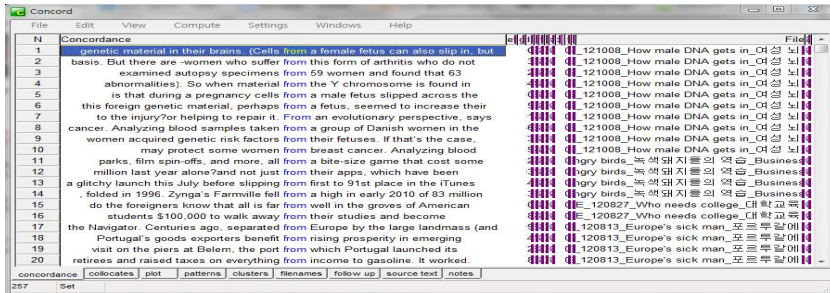


그림 2 ST_Eng의 from 어휘맥락색인



ST 대응 결과 번역코퍼스에 나타난 32개의 '~로부터' 용례 중 25개는 from에서 번역되었다. 나머지 7개는 다른 표현에서 번역되었거나 문형 변경 과정에서 번역사가 추가한 사례로, 특히 후자의 경우 번역사가 ST의 전환 과정 없이 '~로부터'를 한국어 언어화자로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ST_Eng에서 from의 어휘맥락색인을 생성한 결과 용례는 257개로 확인되었다(그림 2). 따라서 총 257개 from 중 '~로부터'로 번역된 경우는 25개로 10%가 채 되지 않는

샘이다. 비록 수치상으로 비번역 텍스트에 비해 번역 텍스트에 ‘~로부터’가 많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동종의 비번역 텍스트가 아닌 일반적인 텍스트에 비해서 그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실제 번역의 대부분에서 다양한 대안이 사용됐다. 이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대안 번역 사례로 <예문 1>과 <예문 2>를 살펴보자.

<예문 1>

ST: These experiments are a big leap forward (1)from 2006, when a French scientist first replayed images (2)from a human mind, a crude black-and-white checkerboard pattern.

TT: 이런 실험은 2006년 프랑스의 한 과학자가 사람 마음 (2)속의 이미지를 흑백 바둑판 모양으로 처음 재현했을 때(1)와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예문 2>

ST: We haven't freed ourselves (3)from fossil fuels.

TT: 화석연료의 굴레(3)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예문 1>의 (1)은 번역사가 ST의 표층구조에서 벗어나 문장을 TT의 구조에 맞게 재구성하면서 (1)'의 ‘~와 비교하면’으로 번역되었다. <예문 1>의 (2)'와 <예문 2>의 (3)'에서 사용된 ‘~속의’, ‘~에서’는 비교적 자주 나타난 번역 사례다.

3.2.2 *through*의 번역투 분석

선행연구(김정우 2003: 159; 이근희 2005: 189-190)는 영어 전치사 *through*가 ‘~통하다’로 번역돼 의미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용례가 많으며 이 표현이 대표적인 번역투라고 지적한다. 특히 김정우는 번역의 영향으로 원래 한국어로 쓰인 문어 텍스트에도 부자연스럽게 사용된 ‘~통하다’의 용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선행연구를 직접 인용한 아래 <예문 1>과 <예문 2>에서 보듯이 ‘~통하다’를 ‘~속에서’, ‘~ 때문에’, ‘~하여’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예문 1>

원글: 심화 학습을 통하여 이 단원의 학습을 마무리해 보자.

대안: 심화 학습을 하여 이 단원의 학습을 마무리해 보자.

(김정우 2003: 159)

<예문 2>

ST: Pollution comes in many forms. We see it, smell it and stumble through it.

TT: 오염은 많은 형태들로 온다. 우리는 오염된 것들을 보고, 냄새를 맡고 그것을 통해 비틀거린다.

대안TT: 오염의 형태는 다양하다. 우리는 오염을 보고, 냄새 맡으며 오염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이근희 2005: 189)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면 *from*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T_Kor에 나타나는 ‘~통하다’의 빈도⁹⁾가 Org_Kor에서보다 더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from*에서와 같은 분석방법을 따라 TT_Kor, Org_Kor, Ref_Kor 각각의 어휘목록을 생성해 빈도와 비율을 아래와 같이 산출, 정리했다(표 4).

〈표 4〉 ‘~통하다’의 빈도 및 비율

통계량	TT_Kor	Org_Kor	Ref_Kor
총 어절수	41,578	75,793	36,942,784
빈도	35	128	37,575
정규화 빈도	42.090	84.441	50.856
비율(%)	0.084	0.169	0.102

표 4에서 보듯이 ‘~통하다’의 정규화 빈도와 비율은 *from* 분석 때와는 반대로 Org > Ref > TT 순으로 높았다. 비번역에서 ‘~통하다’라는 표현이 번역에서보다 2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어 문어 텍스트보다도 크게 높아 해당 장르의 텍스트를 생산한 언어화자들에게 이 표현이 ‘어색하거나 잘못된 번역투’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한다. 또한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해당 표현이 번역보다 일반 한국어 문어 텍스트에서 많이 나타난 점을 볼 때, 최소한

9) 어미 활용에 따른 ‘~통해(서)’, ‘~통하여’, ‘~통한’ 등 변형 표현을 포함한다.

‘~통하다’가 번역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뿐만 아니라 ‘~통하다’가 일반 한국어 문어 텍스트에 비해 한국어 기사문 코퍼스에서 훨씬 많이 나타난 사실은 이 표현을 해당 장르의 언어 특성으로 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TT_Kor에 나타난 ‘~통하다’가 모두 *through*에서 번역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앞서 *from*의 분석과정과 마찬가지로 TT_Kor에서 ‘~통하다’의 어휘맥락색인을 생성하여 각 번역에 대응하는 ST 표현을 추적해보았다. 그 결과 35개의 용례 중 6개는 *through*에서 번역되었고, 나머지 29개는 다른 전치사(*by*, *via*, *from* 등)에서 번역되었거나 번역사가 도착어 표층구조에 적합하도록 문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ST 대응 없이 추가한 경우였다. 또 앞뒤 문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번역사가 임의로 추가해 사용한 ‘이를 통해’와 같은 표현도 번역과는 무관했다. 이 결과를 ST_Eng에서 *through*의 어휘맥락색인을 생성해 분석한 결과에 대입해보니 검출된 46개의 *through* 중 6개, 약 13% 정도만이 ‘~통하다’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본고 코퍼스에서 *through*와 ‘~통하다’의 대응은 번역투의 개별 사례 차원으로 접근할 수는 있겠으나, 번역코퍼스의 특성으로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나머지 40개 *through*는 다양한 방법으로 달리 번역되었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 1>

ST: We heard that within the next 25 years, it will be possible to take 1,000-mile journeys by being fired (1)through tubes.

TT: 앞으로 25년 안에 지하철의 열차 통로처럼 생긴 통로(1)를 따라 발사된 기구를 타고 약 1600km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도 들었다.

<예문 2>

ST: (2)Through the dust kicked up by passing cars on a remote road in southern Rwanda, a striking image became clear as we approached.

TT: 우리가 가까이 감에 따라 남부 르완다의 오지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일으킨 먼지 (2)사이로 두드러진 광경이 점점 뚜렷하게 보였다.

<예문 3>

ST: China and North Korea during this same time frame developed their nuclear programs, maturing them to include land-based and sea-launch weapons systems, testing their entire launch, delivery and detonation process (3)through actual nuclear detonations.

TT: 중국과 북한은 이와 동일한 시기에 자국의 핵 계획을 발전시켜 육지와 바다에서 발사하는 무기 체제를 포함시켰고 실제 핵 기폭장치 (3)를 사용하여 발사, 운반, 폭파 과정의 전반적인 실험을 했다.

위 <예문 1>과 <예문 3>은 *through*가 대표적인 사전적 의미인 동사 ‘~통하다’가 아닌 다른 동사 ‘따르다’, ‘사용하다’로 번역된 사례다. <예문 2>는 동사 형태가 아니라 ‘명사+조사’ 형태로 번역되었고 ST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전달된 번역이다.

3.2.3 분석의 함의

본고의 코퍼스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인 번역투로 제시된 일부 전치사의 번역을 살펴보았다. 전체 코퍼스의 속성보다 개별 사례에 초점을 맞춘다면 해당 전치사에 대한 번역투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선행연구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번역투의 정의나 번역투라는 술어가 주는 인식과 함의를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볼 때 개별 사례를 넘어 이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번역투=번역의 문제’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번역투로 알려진 표현이 한 사회의 언어화자가 생산하는 전체 언어산물에 나타난다는 시각으로 고찰해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번역물뿐만 아니라 비번역물에 나타나는 번역투까지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 타당하다.

번역코퍼스, 비번역코퍼스, 참조코퍼스에서 *from*의 번역 ‘~로부터’와 *through*의 번역 ‘~통하다’의 빈도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면적으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로부터’는 번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통하다’는 비번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참조코퍼스 분석 결과는 두 분석 모두에서 중간 수준이었지만 비번역보다는 오히려 번역코퍼스 결과에 근접하게 나타나 비번역 기사문 텍스트의 성격이 범장르적인 일반코퍼스의 성격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 본고의 번역코퍼스가 도착어의 동일 장르 언어규범보다는 일반적인 언어규범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편 ‘~로부터’와 ‘~통하다’ 사례에 대응하는 ST 표현과 전체 ST에 나타난 *from*과 *through*의 번역을 분석한 결과는 ‘~로부터’와 ‘~통하다’가 각각 *from* 및 *through*와 항상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번역사가 번역이라는 언어 간 전환으로 ‘~로부터’나 ‘~통하다’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ST와 상관없이 한국어 화자로서 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번역투를 바라보는 여러 이론적 관점 중 번역투가 번역 품질 문제라거나 번역 중심의 문제라는 접근은 번역투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보다 언어 간 접촉과 그에 따른 영향으로 보는 관점을 제안한다. 본고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가 접촉을 하고 영어가 한국어에 흔적을 남긴 현상, 또는 한국어 화자들이 영어에 영향을 받아 자신들이 생산하는 언어산물에서 영어의 요소를 모방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차용 또는 코드모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드모방 이론에서는 모델코드(외래어) 모방 시 기본코드(모국어)에 맞게 형태적, 결합적, 의미적 조정이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다(Johanson 1999: 43-44). 영어 전치사 *from*이나 *through*의 경우처럼 의미가 다양한 모델코드의 언어요소가 기본코드에 수용되면서 의미적 조정을 거친다면, 즉 일부 의미가 우세하게 수용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본코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번역투로 제시되는 표현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물론 차용이나 모방의 정도는 언어사회의 규범, 문화, 사상 등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화자들의 언어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Thomason 2001: 66-69). 특히 번역사들은 번역이라는 언어접촉의 매개자이기도 하면서 언어사회 화자로서 전체 언어사회의 언어접촉과 변화에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번역물에서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번역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숙련된 번역사, 또는 전문적인 번역교육을 받은 번역사는 품질 문제로 거론되는 번역투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최희경 2014: 182). 이는 차용이나 모방에 역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언어사회 화자로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언어 사용에 변화가 생길 때 그 흐름을 수용하는 유인 또한 가지게 된다. 본고의 ‘~통하다’ 분석과 최희경(*ibid.*: 117-21)의 전치사 *by*에 대한 번역 ‘~

의하다' 분석에서 이들 표현이 번역보다 비번역에서 많이 나타난 결과는 번역투에 대한 역유인이 번역사에게 작용한 영향도 있다고 본다.

물론 모든 번역물에 나타나는 번역투가 전술한 논리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본고의 코퍼스나 최희경(2014)에서 다룬 언론매체의 번역 기사문은 전문번역사(또는 번역기자)의 번역일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라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번역(Kang 2004)이기 때문에, 대중을 대상으로 발행하기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점검을 거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전문번역사가 아닌 비전문가들도 번역이라는 언어 간 접촉의 능동적인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번역물이 기본적인 품질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때 제기되는 번역투 문제는 번역능력이나 번역 품질 및 평가 관점으로 우선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번역투는 번역뿐만 아니라 비번역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다. 국어 교과서에 나타나는 번역투를 논의한 김정우(2003)뿐만 아니라 번역투에 대한 대중의 담론에서도 번역투 문제는 두 범주 모두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들 문제 제기의 공통점은 그 현상을 주로 '번역과 관련한 문제', '개선의 문제', '모국어답지 않은 언어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데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에 대해 번역투가 번역과 비번역에서 함께 나타난다면 진정 문제의 무게중심이 번역으로 쏠려야 하는지, 또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간행물에서 나타나는 번역투를 품질 열위의 문제로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을 가지며 연구를 전개했다.

본고의 정량적인 분석에서 번역과 비번역에 번역투가 나타나는 빈도는 분석대상에 따라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ST와 TT의 대응 분석에서는 번역사가 ST에 상관없이도 번역투를 사용한다는 점과 대상 ST 사례 대부분이 제시된 번역투와는 다른 표현으로 번역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첫째, 번역 및 번역사가 온전히 독립적인 범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언어사회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번역투를 기존의 번역 중심, 품질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인 언

어접촉 및 변화 현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사례 중심으로 제시된 번역투 연구를 새롭게 다양한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사례 중심 연구는 경험적 연구의 출발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고 유용하다. 물론 경험적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상반된 주장이 나올 수 있고, 분석하는 자료나 대상에 따라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상충할 수도 있으나 그로써 생산적인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본다.

본고의 분석이 한정된 장르의 자료로 구축된 비교적 소규모 코퍼스에 일부 번역투 사례를 대상으로 실행된 만큼 그 결과도 연구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코퍼스의 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층위와 범주의 번역투에 대해 추가로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과 제안으로 번역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고 그 외연을 조금이라도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10) 『21세기 세종계획 - 최종 성과물』, 서울: 국립국어원.
- 김순영 (2012) 「영한 번역에 나타난 번역투 문장」, 『새국어생활』 22(1): 67-79.
- 김정우 (2003) 「국어 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대한 종합적 고찰」, 『배달말』 33: 143-67.
- 김정우 (2011) 「한국어 번역문의 중간언어적 특성 - 그 연원과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1): 76-122.
- 김혜영 (2009) 『국어 번역 글쓰기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현주 (2009) 「번역투와 번역자투」, 『번역학연구』 10(2): 7-22.
- 신유진 (2011) 『영어 번역투 문장 다시 써 보기를 통한 국어 문장 쓰기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희 (2005) 『이근희의 번역산책 - 번역투에서 번역의 전략까지』, 서울: 한국문화사.
- 이근희 (2008) 「번역투 관점에서 본 번역 텍스트의 품질 향상 방안」, 『번역학연구』 9(4): 272-89.

- 최희경 (2014) 『영한 미디어 번역에 나타나는 영어 어휘 차용에 관한 공시적·통시적 연구 - 코퍼스 분석 및 번역가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희경 (2015)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 연구 - 국내외 연구 동향과 과제」, 『번역학연구』 16(2): 317-38.
- Appel, Rene and Pieter Muysken (1987) *Language Contact and Bilingualism*, London: Edward Arnold.
- Backus, Ad (2010) 'The Role of Codeswitching, Loan Translation and Interference in the Emergence of an Immigrant Variety of Turkish', *Working Papers in Corpus-based Linguistics and Language Education 5*: 225-41.
- Baker, Mona (2004) 'A Corpus-based View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9(2): 167-93.
- Bandle, Oscar, Kurt Braunmüller, Ernst Hakon Jahr, Allan Karker, Hans-Peter Naumann, Ulf Telemann, Lennart Elmevik and Gun Widmark (2002) *The Nordic Language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the History of the North Germanic Languages Vol. 1*, New York: Walter De Gruyter.
- Biber, Douglas, Susan Conrad and Randi Reppen (1998) *Corpus Linguistics: Investigating Language Structure and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 Jin and Eugene A. Nida (2006) *On Translation: An Expanded Edition*, Hong Kong: City University of HK Press.
- Flores, Pau Giménez (2012) 'Spotting Translationese in Two Corpora of Original and Translated Catalan Texts: An Empirical Approach', MA dissertation, Barcelona: Universitat Pompeu Fabra.
- Gellerstam, Martin (1986) 'Translationese in Swedish Novels Translated from English', in Lars Wollin and Hans Lindquist (eds) *Translation Studies in Scandinavia*, Lund: CWK Gleerup, 88-95.
- Gellerstam, Martin (2005) 'Fingerprints in Translation', in Gunilla Anderman and Margaret Rogers (eds) *In and Out of English: For Better, for*

- Wors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01-13.
- Gómez-Rendón, Jorge Arsenio (2008) *Typological and Social Constraints on Language Contact: Amerindian Languages in Contact with Spanish Vol. I*, Utrecht: LOT.
- House, Juliane (2006) 'Covert Translation, Language Contact, Variation and Change', *SYNAPS* 19: 25-47.
- Johanson, Lars (1999) 'The Dynamics of Code-copying in Language Encounters', in Bernt Brendemoen, Elizabeth Lanza and Else Ryen (eds) *Language Encounters across Time and Space*, Oslo: Novus forlag, 37-62.
- Johanson, Lars (2002) 'Contact-induced Change in a Code-copying Framework', in Mari C. Jones and Edith Esch (eds) *Language Change: The Interplay of Internal, External and Extra-linguistic Factors*, New York: Mouton de Gruyter, 285-313.
- Kang, Ji-Hae (2004) 'Participation Framework in Translation: A Case Study of the Translation Process and the Power Relationship in the Media', Doctoral dissertation,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Laviosa, Sara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Amsterdam: Rodopi.
- Malamatidou, Sofia (2013) 'Passive Voice and the Language of Translation: A Comparable Corpus-Based Study of Modern Greek Popular Science Articles', *Meta* 58(2): 411-29.
- McEnery, Tony, Richard Xiao and Yukio Tono (2006) *Corpus-based Language Studies*, New York: Routledge.
- Millar, Neil (2009) 'Modal Verbs in TIME - Frequency Changes 1923-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4(2): 191-220.
- Oakes, Michael (2012) 'Describing a Translational Corpus', in Michael Oakes and Meng Ji (eds) *Quantitative Methods in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15-47.
- Puurtinen, Tiina (2003) 'Genre-Specific Features of Translationese?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Finnish Children's

- Literature', *Literary and Linguistic Computing* 18(4): 389-406.
- Scott, Mike (2008) *WordSmith Tools (Version 5.0)*, Liverpool: Lexical Analysis Software.
- Steiner, Erich (2008) 'Empirical Studies of Translations as a Mode of Language Contact', in Monika Rothweiler, Juliane House and Peter Siemund (eds) *Language Contact and Contact Languag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317-41.
- Teich, Elke (2003) *Cross-linguistic Variation in System and Text*, New York: Mouton de Gruyter.
- Thomason, Sarah Grey (2001) *Language Contact: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Winford, Donald (2003) *An Introduction to Contact Linguistic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분석자료 출처 웹사이트>

뉴스위크	jmagazine.joins.com/newsweek , www.newsweek.com
미디어 가온	www.kinds.or.kr
시사저널	www.sisapress.com
워싱턴타임스	www.segye.com , www.washingtontimes.com
주간동아	weekly.donga.com
포춘	fortune.hankooki.com , fortune.com
한겨레21	h21.hani.co.kr

[Abstract]

Revisiting the Concept of “Translationese” based on Corpus AnalysisChoi, Hee-Kyung
(Korea University)

In translation studies as well as in the public discourse, “translationese” usually refers to awkward or ungrammatical linguistic features resulting from the process of translation. In other words, the phenomenon of translationese has been mostly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quality assessment and improvement within the context of translation. Ironically, however, typical features of translationese are observed not only in translated texts but in non-translated texts; thus, they need to be explored from a broader perspective. To this end, the present study analyzes two examples of Korean translationese for two English prepositions, *from* and *through*, in the corpora of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Korean news magazine articles compiled by the autho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ranslationese is not always more distinct in translation than in non-translation, as opposed to conventional theories. Translators were found to have a tendency to use alternatives to translationese expressions for the majority of the two prepositions observed in the source texts. To explain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translationese should be revisited from the viewpoint of contact linguistics.

▶ Key Words: translationese, language contact and change, code-copying, borrowing,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최희경

고려대학교 KU-MU 통번역과정

translation.chk@gmail.com

관심분야: 언어접촉 및 변화, 코퍼스 기반 연구,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6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2월 29일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6일